

군산사랑 UCC 공모전 수상작 선정

총 8편 동영상 작품 응모 5편 영예... 21일 시상식 소셜미디어 채널 통해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 계획

모두가 잘사는 경제도시를 만들어 가는 군산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2019년 군산사랑 UCC 공모전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활기 넘치는 군산경제 만들거리는 주제로 올해 처음 열린 공모전에서 총 8편의 동영상 작품이 응모해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응모한 동영상은 작품완성도, 주제 적합성, 창의성, 활용성을 주요점으로 두고 부서 사전심사를 거쳐 외부 전

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심사결과 대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3편 등 총 5편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대상 '사랑해요! 군산!'(김수영) ▲우수상 '군산 꿈의 군산여행'(김지훈) ▲장려상 '함께 합시다! 경제자립도시 군산'(함정훈), '인력거는 군산사랑을 신고(전정미)', '군산사랑상품권 알아보기(김수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들은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인 '군산사랑상품권'의 적극적인 홍보, 군산공설시장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몰 '물랑루즈 201' 홍보 동영상, 지역관광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의 주요 관광명소와 군산시의 매력을 소개하는 영상 등 각기 다른 뛰어난 표현력으로 군산사랑 실천방법을 담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수상작품은 앞으로 군산시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군산사랑 시민운동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오는 6월 21일 시상식을 개최해 군산시장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대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각 20만원의 상금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김성우 지역경제과장은 "아이디어와 유틸리티, 작품성을 고루 갖춘 이번 수상작들은 향후 군산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산사랑 시민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처음 개최된 공모전은 지역상품 애용하기 및 골목상권 이용하기, 건전한 지역 소비생활 등 지역경제 사랑을 실천하는 군산사랑 시민운동의 확산을 위해 열린 행사다.

/군산=김정훈 기자



17일 군산시의 공동보리축제추진위원회는 지난해 공장 폐쇄 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한국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새달라미 백미 10kg 98포(23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따뜻한 군산 만들기 확산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위해
시-당보리축제추진위원회, 백미 10kg 98포 기탁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지역 사회가 적극 동참해 따뜻한 군산 만들기를 실천,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7일 군산시의 공동보리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갑)는 지난해 공장 폐쇄 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한국GM 군산공장 사내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새달라미 백미 10kg 98포(23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특히 이날 기탁된 상품은 군산 시농업인단체협의회와 미성농업발전협의회가 공동주관한 지난 5월 공동보리축제 기간 동안 축제장 먹거리장터에서 운영한 음식부스의 수익금으로 지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용배 위원장은 "공동보리축제

를 사랑해 주신 시민들에게 보답하고 한국GM 군산공장 해직 노동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준 시장은 "현재 지역 내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근로자들을 위해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사랑, 봉사, 배려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길 바라고 앞으로도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강 시장은 "사내 비정규직 직원들을 비롯해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에 시 차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김정훈 기자

정현울 시장, 백제역사 유적지구 연계관광 활성화 지시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100여명 공공일자리 창출 기대

정현울 익산시장이 17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연계관광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 유적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주, 부여와 협의를 통한 백

제문화권의 연계관광을 추진이 필요하다"며 "익산을 중심으로 공주, 부여로 이어지는 백제권 축제 등 백제문화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익산시는 현재 익산-대전고속도로 '백제왕릉 도굴범을 잡아라', 익

산-부여 코스인 '영화 같은 고백여행' 등 금강오대세이 테마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현울 시장은 이번 '2019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해 "소상공인 지키기, 체육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 환경정비, 마을별 환경정화 등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되었듯 오늘날 최대의 화두는 단연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장정마을과 관련한 최근 환경부 발표 등을 비롯해 잠재위험에 미리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새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소상공인 지키기 등 105명 선발

익산시(시장 정현울)가 새희망근로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한시적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실직자와 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채용인원은 소상공인 지키기 40명, 체육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공공시설 환경정비 32명, 마을별 환경정화 24명, 건강생활지원센터 안내 9명 등 총 105명이다.

참여자건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으로 실직자와 실직자의 배우자, 취업취약계층 등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일부사업예외)이며 근무시간은 주40시간 이내(만 65세 이상은 주15시간 이내)로 시간당 8,350원이 지급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공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화 등 한시적 공공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익산, U-20 월드컵 거리응원 펼쳐

2019 FIFA U-20 월드컵 우승을 기원하는 거리 응원전이 익산에서 펼쳐졌다.

익산시(시장 정현울)가 주관한 거리 응원전은 어양동 중앙체육공원에서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 뜨겁게 펼쳐졌다.

중앙체육공원 운동장 잔디구장에 200인차 대형 전광판이 설치했으며 응원전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율방범대에서 교통단속 및 질서유지에 총력을 기울여 사고 없이 질서 있는 응원전이 진행됐다.

행사 전 진행된 영화 '달모이' 상영과 길거리 응원팀의 사전공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시민들의 단합된 힘과 선진 응원문화를 보여줌으로써 2020년 5월에 개최하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대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기재부 방문 국가예산 확보 '혼신'

익산시(시장 정현울)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에 돌입하는 기획재정부를 찾아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5월까지 중앙부처를 수시로 찾아가 부처예산안 반영을 위한 기초 작업을 탄탄히 한데 이어 6월부터는 부처예산을 심의하는 기재부를 집중 공략하기로 하고 첫 단추

로 17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과 소속 과장을 찾아 현안사업 필요성과 예산반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익산시가 이날 건의한 주요 신규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 식품창업 허브 구축(288억원) ▲국가식품클러스터 가정간편식 (HMR) 지원센터 구축(267억원) ▲익산국가산단 재

생사업(210억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523억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HR)(300억원),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1,886억원) 등도 건의했다.

/익산=장왕원 기자

군산시, 지역푸드플랜 실행 지원 전문가 위촉

군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푸드플랜 실행 지원 전문가(FD, Family Doctor) 위촉식' 및 FD 제도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전담 전문가(FD)는 푸드플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세부계획 수립부터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별 전담 전문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 9개 지자체별 2인의 FD를 위촉해 군산시 FD는 지역농업

네트워크 김종안 지역농업네트워크 이사장과 배옥병 서울시 먹거리자문관이 위촉됐다.

군산시 FD로 위촉된 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월 1회 군산시 현장 방문을 통해 푸드플랜 실행계획 수립·운영·자문, 패키지 지원 사업 이행점검 및 성과 측정, 푸드위원회 및 거버넌스 운영에 따른 교육,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